

黃 ‘굳히기’ vs 吳 ‘뒤집기’

〈교안〉

〈세훈〉



17일 서울 금천구 호서대 벤처타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유튜브 토크회에서 후보들이 토크회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토크회는 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김진태, 황교안 후보. /연합뉴스

한국당 전대 분위기 가열...합동연설회·TV토론회 개최 오 '박 극복론'으로 비박 결집...김진태 부상 가능성도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 경쟁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등 3명의 당권 주자는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대 레이스 초반인 이날 현재 황교안 후보가 앞선 상태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아 전대 구도는 양강 구도로 이룰 것인 관측도 적지 않다. 승패의 판건은 두 후보 지지세력의 결집 여부다.

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친박계 초·재선 의원 10여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황 후보 지지에 나선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황 후보가 탄핵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대했다는 '배박' (박근혜를 배신했다) 논란으로 영남권에서 '황교안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한때 제기됐지만, 결정타는 아니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추격자' 오세훈 후보는 비박(비박근혜)계 및 복당과 결집을 통한 '반황' (반황교안) 전선 구축으로 판세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당권 후보 3명 중 개혁보수 성향의 유일한 비박 후보인 오 후보는 출마 선언은 물론 지난 14일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극복론'을 거듭 제기하며 친박의

지원을 받는 황 후보와 차별화에 나섰다. 아울러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내세워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를 통해 역전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도 다지고 있다.

하지만 비박계의 결집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선거 이후 비박계의 구심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오 후보가 탈계파 원칙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것도 비박계의 결속력을 약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진태 후보가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극우 인사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들린다. '태극기 부대'를 고리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에 대한 열띤 응원전이 펼쳐진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개점 휴업' 끝낼까



문희상 국회의장과 미국 순방에 나섰던 여야 지도부가 17일 오전 영종도 인천공항에 도착, 청사를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외투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합뉴스

여야 대치로 선거제 개혁·민생입법 논의 올스톱 방미단 귀국...2월 임시국회 위한 대화 재개 관심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에서 17일로 종료된 데 이어 2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

길어지는 파행 탓에 각종 민생 법안은 계속 잠만 자고 있고, 선거제 개혁 논의도 멈춰 섰다. 올해 들어 국회 기능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여야 원내대표단이 2월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틀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일단 이날 귀국한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와 함께 이번 주초 회동,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 간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당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사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나머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등으로 정국은 풍풍

얼어붙은 상태다.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약재가 잇따르는 양상이다.

더욱이 '빅 이벤트'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개최되고, 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7일로 예정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진 상태다. 이 때문에 2월 남은 기간 여야 간 냉각기를 거친 뒤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돈다.

물론 여야의 극적 합의로 국회를 조기에 정상화할 수도 있다. 국회 공전 장기화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고, 한국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 국회 가동이 필요하다. 특히 바른미래당-민주당-정의당 등 야 3당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관철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가 절실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해찬 "5·18 정치적 이용 말라"

김진태 5·18 유공자 의혹에 "DJ 내란음모건으로 욕고"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과 관련, "어떻게 광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말이나"고 비판했다. 문화상 국회의장과 동행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그런 망언을 하는데,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걸

사한이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고 그런 짓을 하면 정말 죄 받는다. 더 이상 안 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사집중'에 출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광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5·18 유공자가 됐다"며 거듭 5·18 유공자 명단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이 대표 측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광주 민주유공자"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5·18 유공자 기준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상기시키면서 "이해찬 의원은 3호,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광주민주화운동공로수용자에 해당한다"며 "1999년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에 따라 받은 보상금 1억2300만원으로 기금을 마련해 '5월 정의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정의를 잘 실천하는 사람에게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4·3 재보선 선거전 돌입

경남 2곳...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 '창원 성산'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8일 4·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두 곳으로, 특히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에서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란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접전지로 예상되는 창원 성산에서는 민

주당 권민호·윤용갑·한승태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강기운 예비후보, 바른미래당 이재환 예비후보, 정의당 여영국 예비후보, 민중당 손석형 예비후보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PK(부산·경남) 지역에서 한국당 지지세가 점차 회복되는 와중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 이후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접전지 성격의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

해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다른 정당과의 후보 단일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현 단계에서 후보 공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단일화를 거론하기는 선부르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정의당과 민중당 사이에선 단일화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 권영길·노회찬 전 의원을 배출해 '진보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을 사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양당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화 방식으로 정의당은 여론조사를, 민중당은 지역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총투표를 각각 제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NPL 과 실전경매(기초)

11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강의 일시 ●
- 조선대 : 3월 8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예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의 법.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 소유 공장 만들어 드림!

2019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9년 2월 1일(금) ~ 2월 27일(수)
- 교육기간 : 2019년 3월 8일(금) ~ 6월 14일(금)
- 매주 금요일 주간 3시/야간 7시
- 수 강 료 :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 H. 010-9416-1200 T. 062)230-7700~2

웰다잉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 부터 시행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웰다잉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 수 강 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웰다잉협회 광주광역시부
-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치골드에셋 강의실
-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웰다잉협회 광주지부

- ★ 본 지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 062)511-0030 · 팩스 : 062)512-8767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일로읍 화산연꽃단지 집 1192㎡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700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좋은 1억1880만원
- 별장 나누시 대신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화순 이양면 매정리 산·담 72532㎡ 은행 9천 매도 1억2500
- 농성초 건너편 월산동 소방도 코너 상가주택 대지 118㎡ 주택 78㎡ 1억9천
- 무안 운남면 바다인접 전 계획관리지 4505㎡ 조건은 상담요 1억5천
- 영암읍 학소리 농림지 담(목담) 24694㎡ 조용한생활적합 1억9천
- 완도 군외면 원동리 임 7751㎡ 투자에 좋은 바다인접 4억6천
- 무안읍 원흥·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서구 쌍촌동 운전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강진군 드림팜관광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정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화순 농주면 소재지 땅 588㎡ 3층건물 1128㎡ 은행 1억 인수액 1억천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완도읍 정도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원 등 적합 9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집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전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북구 북동 금남로 47기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13억 7500
- 장흥군 수문대수목장 바다인접 2346㎡ 펜션 등 적합 5억
- 충장로5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2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여수, 땅

- 여주시 봉강동 343-1, 2, 344번지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 대지 431평, 6차선 도로접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30억

문의. 010-6834-7400